

KIA 선발 마운드 '김현수 바람' 분다



지난해 롯데 안치홍 보상선수로 이적...키움전 선발 데뷔 5이닝 무실점 쾌투로 시리즈 스윕 이끌며 눈도장 커브 강점·체인지업 장착중...입대 미루고 경쟁 가세

흐름을 바꾼 KIA 타이거즈 김현수가 2021시즌 선발 경쟁의 새바람이 된다.

김현수에게 2020년은 '운명의 해'였다. 안치홍의 FA 보상 선수로 프로 두 번째 시즌 새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한 그는 KIA에서의 첫 캠프를 '선발 후보'로 보냈다.

기대 속에 시작해 아쉬움의 시간을 보내는 등 마음과 달랐던 결과에 입대를 준비하고 있던 김현수에게 10월 1일, 운명의 무대가 펼쳐졌다.

브룩스의 이탈 등으로 비상이 걸린 마운드에서 김현수에게 선발 기회가 찾아왔다.

'난직' 키움을 상대로 한 첫 선발등판에서 김현수는 5이닝 무실점 완투로 팀의 스윕을 이끌며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아쉽게 KIA는 김현수가 살린 5강 불씨를 지키지 못하고 '가을잔치'에 실패했지만, 눈길 끄는 선발 후보를 얻었다.

운명을 바꾼 키움전은 팬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경기, 김현수에게는 꼭 이기고 싶은 경기였다.

KIA가 까다로운 키움을 상대로 연습을 거두며 위닝시리즈를 쟁겼던 상황, 스윕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김현수가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선발 이류값에서도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

타이틀을 가진 키움 최원태가 앞섰다.

김현수는 "그때 팀이 두 경기 이겼는데 나는 욕심이 있었다. '두 경기 이겼으니까 저도 된다'가 아니라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으로 던졌다"며 "(포수를 봤던) 김민식 선배가 믿어줬다. 2군에서처럼 자신 있게 던졌다"고 돌아봤다.

KIA는 캠프 때부터 김현수의 커브에 주목했다.

짧은 나뭇잎의 파워 커브로 어필한 그는 손 감각이 좋은 선수다. 커브와 함께 슬라이더에 자신감을 보이는 김현수는 체인지업도 연마 중이다. 볼끝이 좋은 직구도 장점이다. 아쉬움이었던 볼스피드도 144km에서 최고 148km까지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김현수는 "직구보다 커브를 더 세게 던진다. 팔스로잉이 빠르고 서재운 코치님께서 변화구에 골고루 장점이 있다고 해주셨다"며 "공이 느렸는데 스피드가 많이 붙었다"고 말했다.

힘이 붙은 2020년이지만 2021시즌에는 힘을 빼고 경쟁력을 더할 계획이다.

김현수는 "스피드가 올라서 힘으로만 붙고, 던지려 했던 것 같다. 조금 더 편하게 힘을 빼고 좋은 공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저절로 이닝도 많이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며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내 공 던지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험을 바탕으로 체력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

김현수는 "몸 관리에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체력관리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회복하는지 많이 물어봤다"며 "3회까지는 괜찮는데 4, 5회 가면서 구속이 떨어졌다. 트레이닝면에서 잡아야 할 부분도 있고, 기술적으로 보충할 부분도 있어서 잘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그에게 특별한 동기부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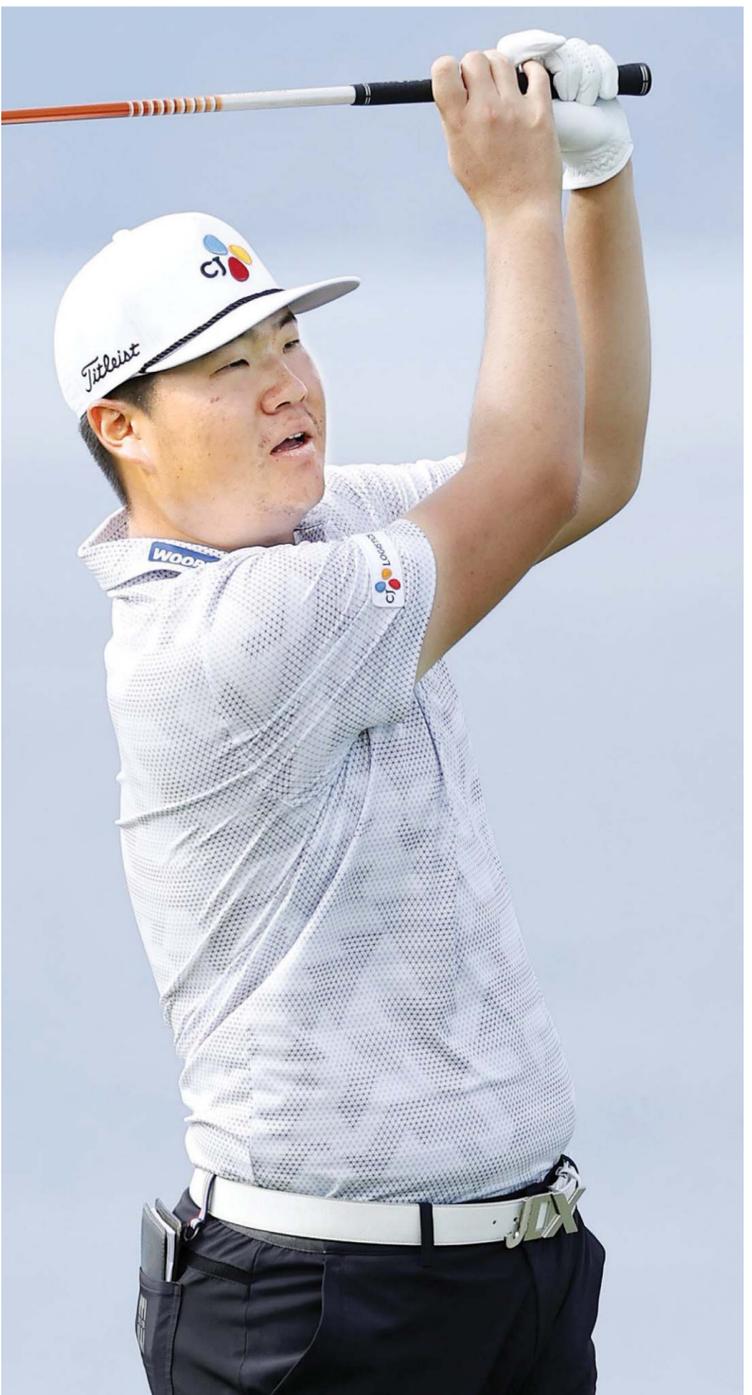
김현수는 갑작스러운 이적에도 청소년 대표 시절 '절친'인 김기훈이 있어 새 팀에 이내 녹아들 수 있었다. 김기훈이 김현수와 자리를 바꿔 먼저 입대를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잠시 떨어지게 됐다.

김현수는 "원래 내가 군대를 간다고 했는데 바뀌었다. 부모님과 정말 상의 많이 해서 결정했다"며 "기훈이 없었으면 이곳에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기훈이 부모님한테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양아들이다(웃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장충고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던 또 다른 친구 NC 송명기의 성장세도 그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다.

김현수는 "명기가 2020시즌에 잘 됐다. 친한 친구인데 어떻게 명기가 했는지 잘 안아도 동기부여도 되고 나도 꼭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며 "둘이 맞대결 때 제일 안 좋았다. 생각이 너무 많았다. 다음에는 지지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성재, 올 PGA 첫 대회 역전 우승 기대

센트리 토너먼트 3라운드 4타차 공동 5위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1년 첫 대회 셋째 날에도 이글 퍼트를 넣고 3개 홀 연속 버디를 잡는 등 좋은 흐름으로 우승 희망을 이어갔다.

임성재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파73·7474야드)에서 열린 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670만 달러) 3라운드에서 이글 1개

와 버디 4개를 묶어 6언더파 67타를 쳤다.

중간합계 17언더파 202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선두와 4타 차로 공동 5위를 달리고 있다.

라이언 파머(미국)와 해리스 잉글리시(미국)가 중간합계 21언더파 198타로 공동 선두다.

1라운드를 공동 3위로 끝낸 임성재는 2라운드 공동 6위를 기록하는 등 사흘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다.

임성재는 5번홀(파5)에서 7m 거리 이글 퍼트를 넣으며 좋은 출발을 했다.

그러나 이후 8번홀(파3) 보기를 9번홀(파5) 버디로 만회하는 등 13번홀까지 타수를 더 줄이지 못해 상승세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임성재는 반등에 성공했다. 14번홀(파4)과 15번홀(파5), 16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며 순위를 다시 끌어 올렸다.

또 18번홀(파5)을 버디로 마무리하며 5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광주FC 김태윤 고교 지도자 변신

성남FC, 성남 U18팀 풍생고 저학년 코치 선임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 광주FC의 '우승 주장' 김태윤이 아마추어 지도자로 변신했다.

성남FC는 최근 구단 유스 출신으로 활약했던 김태윤을 성남 U18팀인 풍생고의 저학년 코치로 선임했다.

풍생중-풍생고 출신인 김태윤은 2005년 성남을 통해 프로에 데뷔해 인천, 사문송클럽(태국)을 거

쳐 지난 2018년 광주에 등지를 틀었다.

김태윤은 광주가 K리그2 챔피언에 오른 2019년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서 나서지는 못했지만, 주장으로 팀을 하나로 이끌며 '우승 주장'으로 자리했다.

박진섭 감독도 우승을 이룬 뒤 우승 MVP로 김태윤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센터백과 풀백을 오가며 K리그 통산 230경기



출전한 김태윤은 2020년을 끝으로 광주와 계약이 만료됐고, 16년의 프로 생활을 마감했다.

모교인 풍생고에서 지도자로 첫걸음을 내딛는 김태윤은 "프로 생활의 대부분을 보낸 성남에서 지도자로 새 출발을 한다. 모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다. 감독님을 도와 더 많은 우리 유스들이 프로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고 싶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유럽 최고 피니셔' 손흥민

영 언론 인디펜던트 최근 5년 기대 득점 1위...케인 2위·메시 3위

손흥민(29·토트넘)이 지난 5년간 유럽 축구 '최고의 피니셔'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신문 인디펜던트는 2016년부터 유럽 주요 리그 골잡이들의 넣은 골수와 '기대 득점(xG)'을 비교한 통계에서 손흥민이 압도적인 1위에 올랐다고 최근 보도했다.

xG란 실제 득점에 득점 가능 확률을 반영해 매긴 수치다. 슈팅 위치, 어시스트의 질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다. 예를 들어 문전에서 손쉽게 발만 갖다 대 득점한 것은 0.96골, 난도 높은 중거리 슈팅에 이은 골은 0.12골로 계산한다.

기대 득점이 낮을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골을 성공시켰다는 뜻이다.

인디펜던트는 축구 통계 전문 업체인 '언더스탯닷컴' 자료를 통해 xG를 분석했다.

2016년 8월부터 손흥민은 61골을 넣었는데, xG는 42.4골이었다. xG 대비 실제 득점이

44.41% 높았다.

이는 바르셀로나에서 올 시즌 10골 이상을 넣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인디펜던트가 선정한 총 20명의 골잡이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손흥민에 이어 토트넘 동료 해리 케인이 xG 대비 실제 득점이 21.33%로 2위였고,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는 21.31%로 3위였다. 이 둘보다 손흥민의 수치가 배나 높았다. 그만큼 고난도의 슈팅 비율이 높았다는 뜻이다.

다만, 손흥민의 xG 대비 득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해서 그가 메시나 호날두보다 더 나은 골잡이인 것은 아니다.

인디펜던트는 "메시와 호날두는 많은 골 기회를 발견해내는 능력 때문에 세계 최고 공격수"라고 분석하면서도 "지난 5시즌 동안 손흥민이 보여준 xG 대비 득점 비율 수치는 그가 '별세계'에 있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특별하다"고 평가했다.

이강인, 마수결이포

12경기만에... '맨 오브 더 매치' 선정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발렌시아)이 이번 시즌 12경기 만에 마수결이 득점포를 터트리면서 '맨 오브 더 매치'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에서 뛰는 이강인은 지난 8일 열린 예르라노 데포르티보(3부)와 2020-2021 코파 델 레이(국왕컵) 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7분 선제골을 터트렸다.

발렌시아는 이강인의 득점을 신호탄으로 무려 4골을 쏟아내며 4-1 대승을 거두고 가법계 3라운드(32강)에 진출했다.

계약 여부 놓고 구단과 신경전을 벌이는 이강인의 득점포가 빛났던 경기였다.

이강인은 이날 발렌시아의 4-2-3-1 전술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그의 선발 출전은 지난해 11월 23일 알라베스와 2020-2021 프리메라리가 10라운드 이후 46일 만이다.

/연합뉴스

우승 희망 쏜다 임성재가 10일 미국 하와이주 카팔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파73)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토너먼트 3라운드 13번 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